



지부 2018년 임단협 투쟁방침 결정

- 3월 26일 48차 임시대의원대회, ‘조직강화와 조직안정화’ 목표 설정
- 지부 집단교섭 5대요구, 사업장 4대 필수요구와 12개항 권고요구안 마련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지부장 문철상)는 3월 26일 오후 2시 노동복지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18년 임단협 투쟁방침을 결정하는 4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18년 투쟁승리를 결의했다.

지부는 2018년 투쟁목표로 ‘조직강화와 조직안정화’를 정하고 투쟁과제로 ‘▲대정부투쟁과 산별투쟁을 바탕으로 2019년 산별교섭 도약 쟁취에 조직적으로 복무 ▲지부 집행력 강화를 위해 지부상근간부의 활동안정화 토대마련 ▲민주노조사수와 현안문제 적극 대응할 것’을 결정했다.

지부는 ‘▲산별임금체계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기본급 월 7.4%(146,746원)인상 ▲지부재정자립기금 현실화 ▲적정인력확보와 정원 유지 ▲고용보장’ 등 5개항을 주요 집단교섭요구안으로 확정했다.

사업장 필수교섭요구로는 ▲산별임금체계마련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포함 충고용보장 ▲조합간부 유급교육시간 확보(년1회 2박3일(24시간)) ▲지부재정자립기금(집단교섭 미참석 사업장) 납부 등 4개항을 정했다.

▲실노동시간단축(임금삭감없는 주 52시간 상한

제, 부족인력 정규직충원) ▲업무시간의 근무지시금지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납품단가 조작금지 등) ▲원하청 초과이익공유제 실시 및 원하청 노사공동위 구성 ▲정년퇴직(국민연금수급 직전 연도연말까지) ▲노사공동 지진대응 매뉴얼 구성 ▲회사내 식당 개선 요구 ▲위험성 평가 등 12개 항목은 사업장 권고요구안으로 선정되었다.

15개사업장 단협갱신교섭, 치열한 접전 예상

올해는 지부소속 17개 사업장가운데 대우버스와 신규지회인 나부테스코 코리아를 제외한 15개 사업장 단체협약 갱신교섭이 임금인상과 맞물려 있다. 사업장별 조합원들의 각종 요구도 다양하게 단협갱신안에 포함되고 있다. 올해는 어느해보다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노동정세로 정부, 사측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조합 중앙교섭은 4월 10일(화), 지부는 4월 12일(목) 금속산업 부산양산 사용자협의회와 상견례를 가지고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는 80명의 지부대의원(미선출 3명)가운데 68명(85%)이 참석했다.

1부 행사에는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 참석하여 격려사를 했다.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박주미 부산시당위

원장도 참석하여 노동자들의 2018년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과 연대의 뜻을 밝혔다.

“노동자 죽음 내몰면 민주노총 노정대화 재고해야” - 구조조정 대책 마련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



금속노조가 3월 24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엠 먹튀행각 규탄,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철회, 중형조선소 대책마련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신승민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외투자 본과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만 거리에 나왔게 생겼다. 이제 대정부 구조조정 저지 투쟁으로 생존권을 지켜야 할 때다”라며 노조의 투쟁을 경고했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일자리는 조선소에 가장 많다. 문재인 정부는 성동조선은 문을 닫으라 하고, STX조선은 179명 남고 다 나가라고 한다”라며 “조선소를 살려야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도 산다”며 분노했다. 홍지부장은 “정부 정책이 계속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다면 민주노총은 노사정은 물론 노정 대화도 재고해야 한다”며 결의에 찬 의지를 밝혔다.

심현선 노조 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지회 사무국장은 “3월 22일 중국 더블스타 회장이 지회에 방문한다고 했지만 거절했다. 먹튀자본과 면담은 필요 없다. 생존권을 두고 협상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심사무국장은 “지금 힘들지만, 우리 곁에 17만

금속노조가 있다. 금속노조를 믿고 해외매각을 투쟁으로 철회시키겠다”라며 지지와 연대를 당부했다.

이날 금호타이어지회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철회 1차 범 시도민대회’를 열고 “해외매각은 먹튀로 이어져 광주 시민의 삶을 파탄 낼 수 있다”라며 매국 해외매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결의대회를 마치고 예상보다 많은 2만 여명이 모인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했다.

부산양산지부는 각지회 간부 40여명이 전세버스를 타고 상경했다**금속부양**



사진으로 보는 2018 투쟁 서막



▲3월 21일 오후 7시 30분,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범일동 삼성생명앞에서 '2018 투쟁선포식'을 가졌다. 의외로 많은 1천여명이 집결했다. 간단한 집회후 참석자들은 현대백화점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삼성생명앞에서 2018 투쟁선포식을 가진 참석자들은 현대백화점까지 거리행진을 벌이고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 쌍용자동차 김득중 지부장이 3월 1일부터 해고자 전원복직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부산양산지부 운영위원들은 3월 26일 오전 지부운영위원회 회의후 점심동조 단식을 벌리고 인증샷을 찍었다.

▼부산양산지부는 부산지역 4곳의 쌍용자동차 영업점앞에서 1인시위를 계속 하고 있다.



▲기장영업소 앞(동부산지회)



▲동래정비사업소 앞 (S&T 모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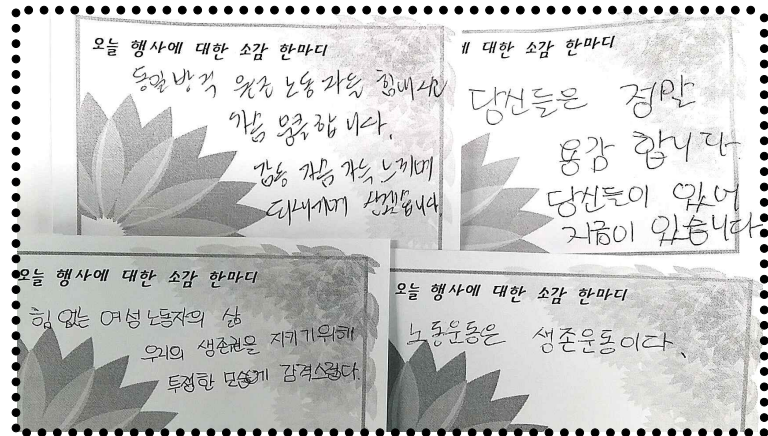
▲중랑동영업소 앞(한진중공업지회)



▲연제영업소 앞(풍산마이크로텍지회)



▲2018. 3. 27(화) 오후 7시 - 오후 9시 10분, 노동복지회관 2층 대강당. 지부는 처음으로 '영화가 있는 여성조합원 만남의날'(다큐 영화 '우리들은 정의파다' - 1970년대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가졌다. 150명이 참석했으며, 영화를 보고난후 구구절절한 '소감 한마디'를 남겼다.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 생존권쟁취 출근선전전’은 부산시청앞에서 주1회 (목)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풍산과 지부 소속 각지회간부등 20여명이 매주 결합하고 있다.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투쟁 집중. 3월 26일부터 노동자건강권쟁취 현수막이 지부 소속 각지회(분회) 현장에 걸리고 있다.